

## □ 국내 신간 도서

2009. 10. 07. (수) | 편집진

### 열하일기

박지원(지은이), 김혈조(옮긴이)|돌베개|2009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중국 기행문 '열하일기(전 3권)'가 새로운 번역본으로 출판됐다. 그동안 10여종의 번역판이 나올 정도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열하일기'는 당대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다. 옮긴이 김혈조 영남대 한문교육과 교수는 연암의 산문문학 연구에 일생을 매진해온 전문가로, '완역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이 책을 새롭게 정리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번역서가 오역은 물론 인명과 지명의 오류가 많아 원작의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새로운 번역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동을 지나 영수사란 절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대수롭진 않지만 절 이름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암이 다녔던 곳을 직접 답사하며 촬영한 500여컷의 사진을 소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연암은 1780년 청나라 건륭 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북경 여행과 함께 당시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열하 지방을 체험했다. 시대착오적인 반청사상을 풍자하고 조선을 낙후시킨 양반 사대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현실 비판적인 내용과 신랄한 표현이 담겨 있다.

### 하이브리드 시대의 문학

김성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09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이자 계간 '21세기문학' 편집위원이며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최근 문학 분야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고, 새롭게 등장한 문예이론들을 성찰한 책이다. 분야간 경계를 넘어 다른 영역을 탐색하고 다른 문화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이브리드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도로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브리드 문화 현상을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 읽어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 집필 목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을 초월하는 트랜스휴머니즘, 국경을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리즘 등 '트랜스' 시대의 대표적인 문예이론들을 점검한다. 또한 그 래픽 노블이나 비주얼 노블 등 관습적인 경계를 초월하고 있는 새로운 문학 장르들을 성찰하는 한편, 최근 미국문학의 특징인, 1960년대 이후 미국 문화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탈중심주의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대에 다시 읽어봐야 할 문학작품을 간단한 내용설명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 마음 vs 뇌

장현갑|불광출판사|2009

영남대 명예교수인 저자가 마음이 지닌 힘을 뇌에 대한 첨단 연구내용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 '과학적 심리서'이다. 저자는 뇌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반대로 마음 역시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뇌의 기능은 명백히 정해진 한계가 있고 대체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 과학계와 의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정밀한 뇌 스캔이 가능해지면서 '뇌가소성' 혹은 '신경가소성' 같이 뇌도 변할 수 있다는 이론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62년 사막 영화의 고전인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개봉했을 때 세계 곳곳의 영화관 매점에서는 쉬는 시간에 음료수를 사려는 관객들로 북적댔다.

스크린 위로 펼쳐진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에 빠져든 관객들이 심한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믿는가에 따라 뇌와 몸은 심하게 요동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심신치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